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발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3호 현대불교
2007년 1월 31일(음력 12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요 부처 없는 것이 부처다!

초를 켜고 불을 밝히는 이유?

문 부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하셨지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07년 한 해가 또 밝아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다른 사찰에서도 그렇지만 선원에서도 촛불제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년기도회가 아니고 촛불제인지요? 그리고 특별히 초를 켜고 불을 밝히는 연유가 무엇인지요?

답 그러면 왜 우리가 정월이면 촛불제를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불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런가 하는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 있었을까, 우리가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가 모두 한데 협조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그 불이 생겨서 곳곳마다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만히 보세요. 지수화풍의 수분과 흙과 바람과, 바람이라면 즉 공기와 모든 게 종합되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한데 종합했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그냥 오래 돌 돌 쌓아 놔도 그 흙 속에서 생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생명체들이 생겨나기만 했으면 또 뭘 할니까? 생겨나 가지고 그 모든 게 조질이 되지 않아서, 크기가 안 되고 조질을 못하니 차원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먹히는 놈도 그렇고 잡아먹는 놈도 그렇고, 무슨 차원의 질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모든 게 그렇게 아수라장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지수화풍도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그 마음이 있는 거라, 모든 게 종합이 돼서 도저히 이

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개혁을 해야만 되겠다. 말하자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요. 개혁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 생명체들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것이 생겼느냐 하면 질서도 지키게 됨으로써 감각이나 지각이나 시각·촉각·청각·미각 이 여섯 가지에 달하는 문제들이 제각기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차원에 따라서 여섯 가지가 다 등장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섯 가지가 등장이 된 것도 있고, 차원에 따라서 세 가

고 실천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 가지고 생사를 논의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 불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 불성이라는 것도 귀중하지만 최초로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들 됐죠.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사일들이라든가, 사람이 살아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생활 도법을 그대로 익히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연쇄적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성이 근중한 줄 알게 됐더라입니다.

우리가 불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과거 몇 억겁 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 뭉쳐서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으로부터 와서 지수화풍으로 또 가죠. 지수화풍으로 또 가면 사대(四大)가 흩어져 버려 지수화풍 자체가 제각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소립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바퀴다 불기둥이다 이런 다면 불 하나의 기둥에서, 쉽게 말해 그 불바퀴에서 모든 게, 마음이라는 입자가 나간다면 그 때 바로 불바퀴가 되고 또 원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그 생명의 창조도 역시 마음으로써 그 원자, 근본 하나에서 또 입자로 종자를 만들면 그 원자가 씨가 되고 씨가 돼서 씨가 되고 씨가 돼서 또 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우주 삼천대 천세계가 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촛불제를 그렇게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촛불제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을 더불어 자신과 즉, '자(自)'는 이 몸이 되고 '신(神)'은 자기 불성(佛性)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다 틀 아니듯이 촛불제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릴 않게 되죠. 마음에 있으니까 촛불제를 하는 겁

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도 모르니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놓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자식을 둔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고, 그것이 자연의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설

있거든요. 잘 생각들을 해 보십시오. 항상 내가 얘기하죠.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짐승 대접밖에 못 받는다.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 대접을 받을 거고 닭으로 태어난다면 닭 대접밖에 못 받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하게 태어나면 천한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망 짊어지고 한 톨 나와서 모두 모여서 놀다가 해가 지면 제각기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한 데에 따라서 금방 찰나에 벌써 한 생이 지나고 무대가 내리면 벌써 또 다음의 모습은 자기가 사는 데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한동안 우리가 혼자 와서 모두 같이 놀다가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꿈도 생시도 틀이 아니란 얘깁니다. 틀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꿈을 잘못 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어허! 이것은 주인공의 뜻이니까 그것도 잘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구경물을 그냥 삼시간에 맑은 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체는 바꾸어 놓을 수 없어도 바로 그 뜻은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체로 나오는 게 말갈게 나온단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 한 생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값진 내 보배를 내 보배로 활용해서 살아가시면서 발전하고 또는 체험하시고, 장래의 2세들한테도 그 모든 묘법이 미치게끔 하고 부모에게도 손색이 없이 밝아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거기서 조금 조금 챙겨서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알 바 있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까.

22면으로 계속

촛불 하나 켜는 데 자기 마음과 더불어 조상의 마음도 밝아진다

지만 된 것도 있고 두 가지만 된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된 것도 있고, 그 차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혁을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조절하고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에 틀게 한 것도 됩니다. 그대 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다 보니까 그때에 태어난 생명체들이 개혁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다시 태어난 짐승들은 모두가 소식(小食)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있는 거 하던 또는 자기 자신들의 생사를 거론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는 생사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넓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

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가설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좀 달라 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가는 겁니다. 친척도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혀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사과드립니다” “더 좋은 신문 만들길...”

한마음선원 · 본사 '폐간 위기' 딛고 공동 발전 모색키로

한마음선원과 현대불교신문사가 '폐간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계 최고의 신문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현대불교신문사 직원은 1월 21일 오전 11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린 정기법회에 참석 '존경하옵는 한마음 선원 스님과 신도여러분께 올립니다' 제하의 문건

을 발표했다. 직원 대표로 나선 임연태 편집부장은 문건을 통해 "저희 현대불교 직원 모두는 폐간 소식을 접하고 냉철하지 못한 마음으로 여러 상황에 대처하면서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저희 직원들의 가슴에는 현대불교는 불교계 최고의 신문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했기에 폐간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

금 회수를 위한 폐간, 비불교적인 처사, 심지어 선원 내부문제에 의한 불합리한 결정 등의 사실과 다른 논리를 펼치게 됐습니다. 또 발행인 스님과 협의 없이 '폐간' 관련 기사를 지면에 반영해 파장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의한 실사결과를 듣고서, 선원이 폐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선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귀한 돈에 대한 주인의식이 미흡했던 점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영상의 많은 과오와 막대한 경영부실을 조래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께서 폐간 유보결정과 함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기간 후에도 약속드린 바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선원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 전국 지원의 일부 지원장 스님 그리고 신도 2천여 명은 현대불교 직원들을 큰 박수로 격려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현대불교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직원들에게 있으니 그 길을 잘 찾아보라"고 격려하고 "스님과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현대불교신문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서울 승가사

주 지 이지성(中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1동 628-3호
전화 02)2292-3418 팩스 02)2282-3418

호명산 감로사

주 지 이지성(中九)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1번지 전화 031)584-0117 팩스 031)585-5747
카페 주소 cafe.naver.com/kamrosa 또는 호명산 감로사

한국불교화엄종

경각산 구이 극락도량 정각사

주 지 벽송

신도 회장 정강희

부 회장 백봉선

사부대중 일동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063)222-2555~6